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 2 보좌

몇 년 전에 *처치 뉴스*에서 어느 가족이 침례를 받고 일년 후에 성전에 가서 영원한 가족 인봉을 받은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성신권의 인봉의 권세에 의해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는 것이 그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봉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덟 살 된 딸이 동경의 눈빛으로 성전을 바라다 보며 “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주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교리와 성약 97:15~16)

성전에 오는 분들을 위해 주님이 마련해 주신 축복으로는 기쁨, 평안, 소망, 위안, 성취감, 사랑, 영육이 새롭게 됨, 구원, 승영,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등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운데 내적인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위안을 갈망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성취감을 맛보며 성전을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온갖 질병과 우환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시달릴 때 치유와 위안을 찾아 성전에 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경건한 성전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의 집을 찾는 충실한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집에 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시편 122편 1절의 다음 말씀이 한없이 깊은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집에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못 볼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청년 대회 소식

서울 동·영동 스테이크

- 기간 : 1992년 8월 4일~7일
-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약수리 약수국민학교
- 주제 :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교리와 성약 88 : 125)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생각해 하는 평창에서 사방을 병풍으로 둘러쳐 놓은 듯한 절경을 배경으로 서울 동·영동 스테이크 청년 대회가 열렸다.

CIS(독립 국가 연합), 진리를 찾아서, 강가에서, 민속 한마당, 세미나, 청년 물문의 자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CIS에서는 각 대별 모임을 통해 얻은 우정을 전체로 확산하여 모두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고, 진리를 찾아서는 조가 나뉘어서 험난한 산을 오르며 사랑과 단합을 보여 주었다.

둘째날의 ‘민속 한마당’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한 맛자랑 멋자랑과 함께 10여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와 가야금 병창이 펼쳐져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신명나는 시간이었다.

네째날, 물론 청년의 자세에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물론 청년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회는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과 음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기쁨과 사랑의 장이 되었고 동·영동 스테이크 독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낄 수 있었다. □

(기사 제공 : 김순 자매)

강서·인천 스테이크

- 기간 : 1992년 8월 3일~6일
- 장소 : 경기도 하남 캠프장
- 주제 : “너희 죄를 씻어 버리고 회개할 날을 미루지 말라”(엘마서 13 : 27~29)

150여명의 두 스테이크 독신성인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 대별 장기 자랑, ‘국제 결혼’에 관한 그룹 토론 및 세미나, 베이스 활동, 야간 극기 훈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룹 토론 ‘국제 결혼’에서는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행복은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학위 취득이나 기타 이유로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루지 말자, 결혼 전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등의 건전한 결론에 도달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됩’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신학 연구원 교수인 정태걸 형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첫째 ‘영적인 힘’, 둘째 ‘육체적인 힘’, 셋째 ‘가정’, 네째 ‘교회’, 다섯째 ‘직장’ 순으로 우리의 시간을 분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에는 캠프 파이어 후의 촛불 의식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회 기간중 많은 스테이크 역원들이 방문해서 격려와 도움을 주었다. □
(기사 제공 : 엄건용 형제)

부산 스테이크

- 기간 : 1992년 7월 28일~30일
- 장소 : 경남 울산군 강동면 정자리 강동 국민학교
- 주제 : “너희 뜻대로 행하라...”(니파이이서 10 : 23)

1992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사흘간은 시온의 의로운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현숙한 딸들에게 또 하나의 뜻 깊은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울산군 강동면 정자리, 동해안의 작은 포구에 자리잡은 ‘강동 국민학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가진 '92 부산 스테이크 청년 대회는 “너희 뜻대로 행하라...”(니파이이서 10 : 23)를 주제로 모든 프로그램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하여야 할까?’라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 대회였다.

대회 일정과 성도들의 직장의 휴가가 일치되지 않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75명의 참석자 모두가 한결같이 복음속의 형제, 자매들끼리 나누는 사랑과 우정으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



신혼 부부들과 나눈 세미나, 고등 평의원이신 전영준 형제로부터 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제언’, 지역 대표이신 민혜기 장로님에게서 배운 ‘시간 관리의 지혜’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참석자들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며, 달란트 10개씩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시험받은 ‘이상한 게임’과 모닥불 주위에서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들 또한 젊은 가슴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기사 제공 : 김영삼 형제)

교회 소식 및 지역 소식

부산 서 스테이크

- 기간 : 1992년 8월 3일~6일
- 장소 : 경남 산청군 묵곡리 솔밭 야영장
- 주제 : “너는 저보다 크뇨”

부산 서 스테이크의 독신 성인 70여명은 묵곡 솔밭에 시온의 캠프를 설치했다. 함께 한 독신 성인들은 단순한 활동 모임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견딜 수 있고 그러기 위해 먼저, 겸손하게 주님의 표준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자는 결의 아래 대회에 임했다.

복음 성가 및 가요 경연, 무도회, 분임 토론, 세미나, 데이트, 캠프 파이어, 간증회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안재석 스테이크 부장님과의 열띤 토론과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는 세미나는 참여자에게 훌륭한 느낌을 전해 주었다.

이번 대회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훌륭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은 희생을 했고 참여자들

각자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서로 돕고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기사 제공 : 유정우 형제)



대구 스테이크, 원주·강릉 지방부

- 기간 : 1992년 8월 4일~7일
- 장소 : 강원도 강릉 사기막 국민학교
- 목적 : ‘해의 왕국의 결혼’, ‘표준을 높인다’
- 주제 : “내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6:13)

7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대구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과 원주·강릉 지방부 독신 성인 150여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대구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윤주환 부장의 감리로 3박 4일간의 합동 청년 대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우정의 밤, 등반 대회, 미니 올림픽, 캠프 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날 첫번째 프로그램인 우정의 밤에서는 대대별 발표 및 장기 자랑이 있었는데 뮤지컬 콘트를 발표하는 중에 실수를 연발하여 주위를 웃음 바다로 만든 다솜 2대대가 우승했다.

둘째날 안개비로 젖은 땅을 밟고 가진 등반 대회에서는 정상을 향해 오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손을 잡아 주면서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했으며, 마지막날 가진 촛불 캠프 파이어에서는 대회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서 타고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저마다 복음안에서

만나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복음안에서 만나 짧은 시간에 형제, 자매로서의 우정을 키우고 간증을 전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느끼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 훌륭한 대회였다. □

(기사 제공 : 이수강 형제)



광주 스테이크

- 기간 : 1992년 8월 5일~8일
- 장소 : 전남 나주군 다도면 다도 남국민학교 방산 분교
- 목적 : 원대한 소망을 지니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지닌다

광주 스테이크 청년 대회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3박4일) 나주 다도 남국민학교 방산 분교에서 “원대한 소망을 지니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 힘을 지닌다”는 목적 아래 치루어졌다. 첫날은 “아담과 이브” 연극 발표 및 와드별 우정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이크내 독신성인들간의 우정 증진을 도모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둘째날은 멀리 서울에서 지역 대표인 김종열 장로님이 방문해서 삶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하는 것들, 크고 알맞는 소망, 융통성 있는 계획,

게으르지 말 것 등 독신들이 따라야 하는 길들을 제시해 주셨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 응답과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조별 발표회 및 체육 대회 등으로 일체감과 조직의 단합심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셋째날은 야외에서 극기 훈련을 통해 단합, 사랑, 희생,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축제 한마당, 대화의 광장 등의 순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저녁엔 무도회를 갖고 이어 캠프 파이어로 이어지는 가장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엔 금식 간증 모임 등을 통해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이제까지 배운 것을 가슴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모임을 마무리지었다. 이 모임엔 약 1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

(기사 제공 : 김정기 형제)

1992년 하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

지난 9월 19~20일 양일간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를 감리자로 모신 가운데 하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교리와 성약 64:33~34)는 말씀을 대회 주제로, 토요 대회에서 헨슨 장로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교리와 성약 84편)을 일깨워 주시면서 갖 침례받은 회원에게 부름을 주어 봉사의 기쁨으로 계속 교회에 머물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것도 역시 회원의 의무임을 지적하셨다. 일요 모임에서 김택우 스테이크

부장은 “각박하고 분주한 현대 생활을 빌미로 교회의 부름에 나태해지지 말고 성장기의 순수했던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말일에 좋은 것을 먹자”고 강조하였다.

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하는 문제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으며 교회 생활과 경전을 대함에 늘 순수해지고 행복감에 젖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헨슨 장로는 아름답게 잘 준비된 서초 와드의 합창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라고 합창단을 치하하고 본 대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9세의 한 소녀가 라군(유타주 소재 관광지)을 구경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보상하는 편지를 소개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일에서도 큰 일이 생겨난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614명이 참석한 대회는 시종 영적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스테이크 행사를 통해 신선식(천호 와드) 형제와 전형배(신장 지부) 형제가 장로 신권을

성임받았으며 새로운 고등평의원으로 차종화 형제(성남 와드), 조양호 형제(잠실 와드), 그리고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최상업 형제(잠실 와드)가 각각 부름받았다. □

(기사 제공 : 고천석 형제)

역원 변경

- 대구 스테이크
포항 지부 지부장 : 허정도 형제
(전임자 : 정외곤 형제)
- 청주 스테이크
선화 와드 감독 : 고명한 형제
(전임자 : 심재선 형제)
- 원주 지방부
원주 지부 지부장 : Borden 장로
(전임자 : 최대봉 형제)
- 강릉 지방부
동해 지부 지부장 : Wineger 장로
(전임자 : 양덕준 형제)
속초 지부 지부장 : Ruff 장로
(전임자 : 심종우 형제)

선교사 훈련원 제 143 기

(1992. 8. 24~1992. 9. 4)

〈성명〉	〈출신지〉	〈선교부〉
황동주 장로	부산 서 S/총무 W	서울 서 선교부
이 경 정로	전주 S/김제 B	서울 서 선교부
정국호 장로	대구 S/중리 W	서울 서 선교부
신상철 장로	부산 S/온천 W	서울 서 선교부
이주형 장로	서울 북 S/불광 W	대전 선교부
한용희 장로	서울 북 S/불광 W	대전 선교부
안병선 장로	안양 S/시흥 W	대전 선교부
김 훈 장로	동대문 S/장안 W	대전 선교부
김상경 자매	서울 북 S/불광 W	대전 선교부
송희선 자매	안양 S/시흥 W	대전 선교부
김명녀 자매	동대문 S/장안 W	대전 선교부
노경례 자매	서울 S/화양 W	부산 선교부
김혜영 자매	영동 S/둔촌 B	부산 선교부
이은숙 자매	청주 S/북대 W	부산 선교부



앞줄 왼쪽부터 : 황동주, 안병선, 신상철, 이경, 정국호, 김훈, 이주형, 한용희
뒷줄 왼쪽부터 : 이은숙, 김명녀, 노경례, 김상경, 송희선, 김혜영